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첫 주말 표정



익숙한 듯 생소한 '추억 만들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첫 주말이었던 5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는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사진은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작품 '식물극장'

관객 이정은씨는 'Peace of mind' 작품을 통해 오는 작곡가가 됐다. 몇개의 간단한 코드를 입력하고 몇 초가 지나자 그가 입력한 코드가 아름다운 멜로디로 변환돼 피아노로 연주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 AI 작곡가 '이봄' (카이스트 안창욱 교수 연구팀) 덕이다. 피아니스트 없는 피아노가 '홀로' 연주하는 모습에 다른 관람객들은 신기한 듯 영상 촬영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전작의 '자연'을 찾아가는 '캠퍼'는 여유로운 자연 속 캠핑 현장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캠핑가 안에 들어가 이모지모를 살피고 작가의 오토바이에도 올라 타 본다.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개막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첨단기술과 아날로그적 풍정이 어우러진 전시 현장이다. 또 환경과 생태 문제, 기계와 인간의 관계 등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예술가들의 해답을 만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직접 참여하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넉넉히 시간을 갖고 관람하면 즐거움이 두배다.

첫 일요일인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는 가족, 연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만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였다.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모두 2600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관람객들은 첫 작품인 디뮤지엄과 와다 바르셀로나의 '색에서 영원으로'에서부터 발길을 멈추고 다양한 색깔의 4000개 종이꽃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촬영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 5·18 피해 당사자들을 광주교도소 등 '그 때 그 현장'으로 데려가 촬영한 김은주 작가의 '치유되지 않은 빛' 시리즈를 접한 관람객들은 각각의 피해자들의 사연이 담긴 글을 꼼꼼히 읽으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기도 했다.

세소리와 물소리가 들리는 '식물극장' 역시 인기가 높았다. 이 작품은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식물의 향연과 벽면에 설치된 우리로 만든 정원, 실제 자라고 있는 다채로운 식물들, 직접 넘겨 가며 읽어볼 수 있는 식물에 관한 책과 글귀들이 인상적이다. 검은 장막을 하나씩 걷어가며 작품을 만나는 1전시

가족·연인 등 다양한 연령층 관람객 적극 참여 4000개 종이꽃 촬영...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인기

실의 마지막은 탁 트인 넓은 공간이다. 이 곳에서는 다양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수십종의 의자 컬렉션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리도구 등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 더이상 불을 밝히지 않는 폐선의 집어등을 조합해 작품으로 구현한 부지런 작가의 'Luminous'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은 버려진 마스크를 재활용해 만든 의자, 수십권의 책을 이어붙여 만든 책의자, 이제는 전설이 된 멘디니의 '푸르스트 체어' 등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여개의 대형 테이블마다 각각의 주제로 작품이 전시된 2전시실은 관람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색연이다. 특히 '레게음악의 왕' 밥 말리의 펜이라면 놓칠 수 없는 흥미로운 공간이기도 하다. LP에서 흘러나오는 밥 말리의 음악을 헤드폰을 낀 채 감상하고, 몰스킨 전시와 함께 자신만의 다이어리도 만들어볼 수 있다. 또 자동차가 가구가 되고 교류의 장이 되는 유크한 작품 'The HSI'은 사진 스폿으로 인기가 높다.

또 김상연 작가의 '우주를 유영하는 고래'는 플라스틱, 어망, 철 등 해양 쓰레기와 AI 기술을 결합한 작품으로 해양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밖에 '홀로렌즈R 2 기반 메타버스 체험 공간', '미래 자율 주행 차량 XR램' 등 첨단 기술을 만날 수 있는 3전시관에서 다양한 체험(현장 예약)을 즐기는 이들도 많았다.

이번 비엔날레 홍보대사인 조수미 홀로그램 극장은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 하나다. 조씨가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가요 '나 가거든', 호프만의 '인형의 노래' 등을 부르는 장면을 최첨단 기술로 구현해낸 콘서트 장면은 인상적이다.

장애우들과 전시장을 방문한 김명례 활동지원가는 "비엔날레에 비해 디자인비엔날레는 좀 더 쉽고 볼거리도 많아 흥미롭게 관람했다"며 "특히 장애인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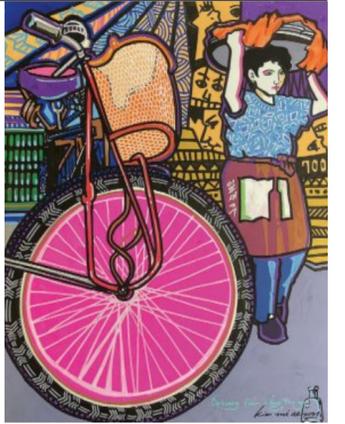


영동상상의 '의자가 입을 때는 순간'

한 체험을 하며 반응을 보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남편, 7살 딸 아이와 함께 방문한 김정희씨는 "익숙한 작품도, 생소한 작품도 있어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 삶과 아주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미래에는 자연과 인공이 결합된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고 데이터로 만들어진 새로운 인간 유형이 등장한다"며, "디자인은 인간과 시스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림 하비브 기아자동차 글로벌디자인담당 전무, 윤승이 NC 소프트 사장, 안선영 바로스코퍼레이션 대표 등이 참여, 현재와 미래의 혁신적인 가치창출을 선도하며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월요일 휴관. 1시간에 300명 입장 가능.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Delivery from a long time ago'

대인예술시장 여인들 김미애, 10일까지 미노갤러리

시장의 여성들은 온 몸으로 삶을 살아온 이들이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키고, 가정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광주의 대표 시장인 '대인시장'의 여인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팝아트와 설치 작업을 통해 현대 여성과 젠더를 주제로 작업해온 서양화가 김미애 작가가 삶의 현장을 지켜온 대인시장 여인들의 삶을 그려낸 작품으로 개인전을 갖는다.

오는 10일까지 광주시 동구 미노갤러리(동계로 15번길 20-4)에서 열리는 '대인예술시장의 여인들'전은 김 작가가 역력스러운 삶 속에 담긴 담백하고 솔직한 시장 여인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전시다. 김 작가는 다양한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회화 작품과 함께 그들을 상징하는 소품들을 활용한 설치 작품 등 20여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작품을 통해 여성들이 민낯을 드러내고 꾸미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당당한 여성으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시작들은 대인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팝아트적인 색채와 그래픽티한 표현으로 위트있게 표현한 게 특징이다. 또 시장 상인들의 필수품인 앞치마와 장화를 비롯해 화장품, 속옷 등 여성의 구체적인 오브제들을 합친 설치 작품을 통해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김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동대학원 미술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한국교원대학교에 출강중이다. 전시가 열리는 '미노갤러리'는 계림동 나무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걸어서 5분이면 대인예술시장을 찾을 수 있으니 전시 관람 후 시장에 들러 '현장'에서 생생한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석우 작 '권태, 하나의 일관성'

작은 겁쟁이들의 파티가 시작된다

이철·전민수 기획, 남석우·박다운 초청... 15일까지 산수짜리

문화 예술공간 산수짜리는 매년 기획자와 함께 색다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한 기획자 협업프로젝트 '큐레토리얼리즘ver.3'이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동구 중장로 산수짜리(중장로46번길 8-8)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철, 전민수 두 기획자가 참여했으며 남석우·박다운 작가를 초청해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 주제는 '작은 겁쟁이들의 파티: 오프닝 리셉션'이다.

남석우 작가는 '프랑크슈타인', '해골' 등 고독하고 우울한 이미지를 통해 연민과 슬픔을 드러낸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키도 크고 폭력적인 신체도 가지고 있지만 어딘가 겁에 질린 모습으로 젊은이들의 초상을

대변한다. 박다운 작가는 스스로 빛을 발산해 어둠을 탈피하는 것을 위 표상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품을 선보인다. 삶의 불안을 성장의 원료로 삼겠다는 자기 고백이기도 하다.

전민수 기획자는 "기성세대들에게 부여됐던 삶의 루틴이 이제 그 형체와 의미를 상실한 채, 지금의 청년들은 마치 이정표를 잃어버린 여행자와 같다"며 "전시 주제 '오프닝 리셉션'은 파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청년들의 시작과 닮아있어 삶의 막연한 여정 속에 발생하는 에피소드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이자 역동적인 모임"이라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